

‘취업 시 출석 인정’ 세척개정으로 조기취업자 구제방안 마련돼

‘취업계’ 부정청탁 문제

권유진 기자 hahayj23@khu.ac.kr

지난 4일,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이 제정됐다. ‘취업계’가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모든 과목에서 낙제를 받을 뻔한 조기 취업자들의 졸업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학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인한 대학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조기 취업자들의 출석인정’에 관한 것이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기 취업으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학점을 인정해주던 이른바 ‘취업계’ 관행이 학점 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해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는 9월 26일 조기 취업자의 학점 부여 관행에 대한 대응방안을 각 대학에 안내했다.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존 학칙에 따르면, 6주 이상 결석하면 낙제 학점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10월 중순 안에 각 대학 별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조기 취업자들에게는 무조건 F가 부과돼 졸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필요했다.

우리학교 교무처와 학사지원과는 취업

계 관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하고,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후에 특례 제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19일, 교무처는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할 계획을 밝혔고, 지난 4일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 12조 1항 8번에 근거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이 제정됐다. 즉, 출석 인정에서 결석계 제출과 관련된 부분에 총장이 허가한 사유 중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다. 세척 적용 대상자는 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당해 학기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취업한 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또는 수습과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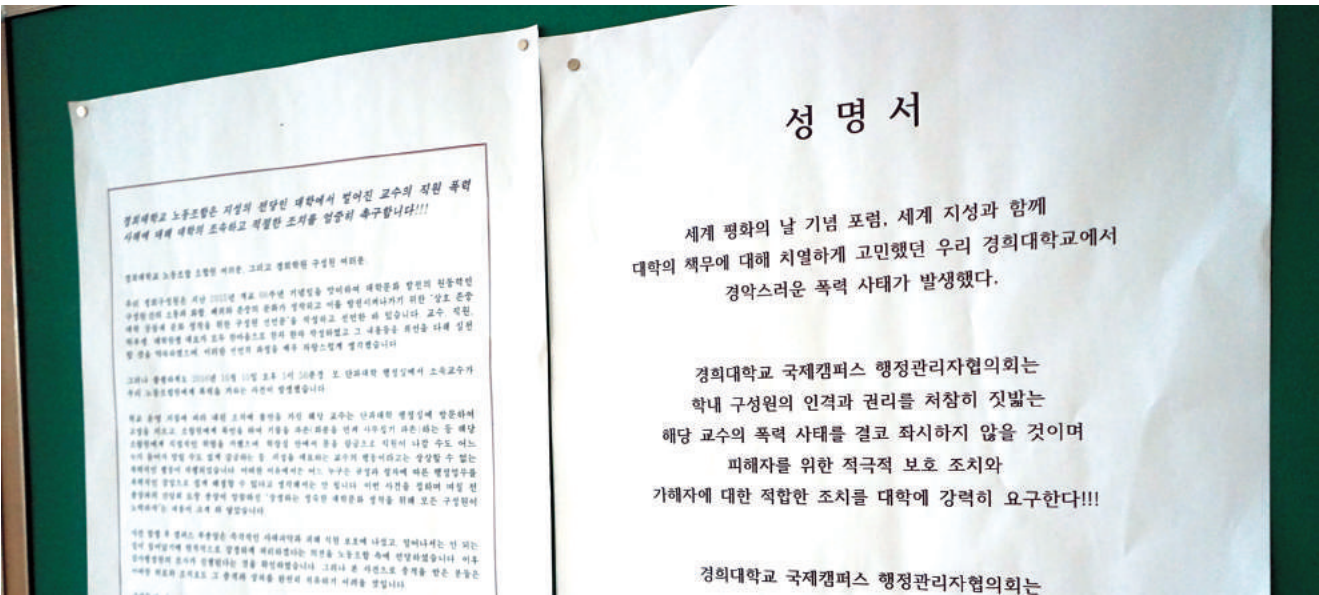
이 세척의 적용을 받아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석인정신청서와 수강신청확인서,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서가 필요하다. 출석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만 가능하다.

취업진로처 측은 “취업한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세칙이 제정되어 다행이다. 학생들이 걱정 없이 취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척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를 기준으로, 조기 취업자들의 출석이 인정된다. 조기 취업한 4학년 학생 중 한 명은 “출석이 인정되지 않을까봐 마음 졸이던 날들을 다시 생각하기도 싫다”는 소감을 전했다.

세척 제정으로 취업계를 둘러싼 논란은 줄어들겠지만, 수강 신청이나 학점 정정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부정청탁 금지법에 걸리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 학교 측의 확실한 대안이나 입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

- ① 학생은 사유발생 즉시 각 담당교과목 교·강사에게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서류를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에 소속 학과장 확인을 받은 후 복사하여 원본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고 사본은 각교·강사에게 제출한다.
- ③ 교·강사는 신청서류 승인 후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과제, 시험, 기타 등)을 학생에게 안내한다.
- ④ 학생은 교·강사가 제시한 과제 제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은 학기말(기말시험 전주)에 출석인정 증빙을 위한 서류를 각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교·강사는 출석인정 증빙자료 및 제 준수사항의 시행여부를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한다.



직원노조와 국제캠퍼스 행정관리자협의회는 이번 폭력 사태를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다.

생명과학대학 교수 직원에게 폭언 공사중단 불만... 감사원 조사 중

국제캠 직원 폭행 사건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지난 달 13일 우리학교 노동조합은 “지성인 전당인 대학에서 벌어진 교수의 직원 폭력사태에 대해 대학의 조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10월 10일 모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소속 교수가 노동조합원(직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된 국제캠 행정관리자 협의회도 18일 “해당 교수의 폭력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대학에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게재했다.

당시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오후 3시 50분 경 자신의 실험실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해당 교수는 생명과학대학(생대) 행정실 직원에게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실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생대 학장실로 들어오게 하여 일방적인 폭언을 계속했다고 한다. 또한 화분을 책상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위협을 가하고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문을 잠그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가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거기에는 해당 실험실 연구진 그리고 생대 행정실 직원과 타 부서 직원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다.

소란이 커지자 통합방범상황실인 삼성에스원의 직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현장에 갔던 상황실 직원은 “교수가 다시 돌아오실 수 있으니 행정실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했다”며 “상황이 종결될 상태여서 자세히는 모르나 학장실의 화분이 깨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생대 행정실측은 “피해자인 교직원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행정실 측에서도 사건에 관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해당 교수는 “연구진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실에서 계속 협조하지 않는 이유 대해서 물어본 것 뿐이다”고 말했다.

교수는 당일 상황에 대해서 “다만 말을 나누다 보니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졌고 행정실에 다른 사람들이 많았기에 학장실로 들어가서 얘기했다” 또한 “화가 나서 화분을 들었다 내렸는데 깨진 것이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학장실 문을 잠갔다”고 말하면서도 “성명서에 적힌 내용은 과장이다”며 교직원에게 폭력적으로 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해당 사건은 동서의과대학에 위치한 교수 실험실의 홍보게시판 공사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실험실 연구진은 사업평가결과 중 ‘홍보게시판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이행

하기 위해 생대 행정실에 공사에 대한 협조를 수차례 요구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대 행정실과 동서의과대학 행정실 그리고 관리팀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다가 결국 해당 실험실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10월 8일 공사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 날 동서의과대학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시험이 있었고 소음을 이유로 생대 행정실에서 공사를 중단시켰다. 결국 해당 교수가 공사 중단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호(원자력공학) 국제부총장은 “학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덜어 줄 수 있는 상담 체계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와 관련해서는 감사행정원에 사건의 경위와 학교규정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밝혀달라고 부탁하여 조사 중이다”고 했다. 감사행정원 측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중이며 11월 중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피해자인 교직원에게 전문기관과 연결하여 심리 상담과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조합 송혜경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다”고 말했다.

제42회 중앙도서관 독서토론회

- 강 연
 - 이택광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영미문화전공 교수
- 주 제
 - '우리 안의 지도 그리기 :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
- 일 시
 - 2016. 11. 17. (목) 오후 3시
- 장 소
 -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강사 주요 저서
 - 인성파 파리를 그리다 /이택광 지음, 아트북스, 2011
 - 마녀 프레임 /이택광 지음, 자율과요요, 2013
 - 고흐와 고갱의 유토피아 /이택광 지음, 아트북스, 2014
 - 불가능의 예술 /바슬라프 하벨 지음, 이택광 옮김,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 강연 후 추첨을 통한 도서 증정 행사가 있습니다.

본 강연은 자기 안에 자리 잡은 욕망의 지도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응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부름에 종속되어 있고자 하지만, 사실상 그런 '누군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그 깨달음에서 진정한 자유의 삶이 가능할 것이다. — 강연 요약

- 문의
 -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T.02-961-0074,0078 khns3015@khu.ac.kr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2017학년도 전기 공공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모집분야 및 인원				
과정	모집인원	학과	전공명	학위명
석사과정	113명	정책학과	공공정책전공	행정학석사
		의료관리학과	간호행정전공	의료행정학석사
		의료관리학과	병원행정전공	의료행정학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과	노인·케어복지전공	사회복지학석사
		시민사회·NGO학과	시민사회·NGO전공	시민사회(NGO)학석사
		글로벌거버넌스학과	글로벌거버넌스전공	국제개발학석사

●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기간	2016.10.31.(월)~11.18(금)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http://www.uwayapply.com)
서류제출기간	2016.10.31.(월)~11.18(금)	청운관 6층 공공대학원 행정실
전형일(면접)	2016.11.26(토) 14:00	청운관
합격자발표	2016.12. 9(금) 14:00	공공대학원 홈페이지
합격자등록	2016.12. 9(금)~16(금)	하나은행 가성계좌로 입금

- 강의
 - 매주 화요일/수요일 아간
- 다양한 장학혜택
 - 공공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Tel. 02-961-9240~1 • Email pnc@khu.ac.kr • 홈페이지 <http://pnc.khu.ac.kr>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2017학년도 1학기 국제대학원 석·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

● 모집 분야 및 모집인원	
분야	인원
국제통상협력학과	석사 00명
국제경영학과	석사 00명
국제개발협력학과	석사 00명 / 박사 00명

- 지원 자격
 - 석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전형방법
 - 국내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40%), 영어작문시험(20%)
 - 해외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60%)
 - ※ 해외거주 지원자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

● 전형일정	
구분	기간
인터넷 접수	2016.10.17.(월) ~ 2016.11.10.(목) 24:00
지원 서류 제출	2016.10.17.(월) ~ 2016.11.14.(월)
국내 거주자 인터뷰 및 영어작문시험	2016.11.26.(토) ※시간 개별 통보
해외 거주자 인터뷰	2016.11.21.(월) ~ 2016.11.25.(금) ※시간 개별 통보
합격자발표	2016.12.5.(월)

- 지원방법 및 제출 서류
 - 인터넷 접수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후 지원 서류 제출
 - ※ 자세한 내용은 국제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gsp.khu.ac.kr>)

- 서류 제출
 - 우편접수 : [17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 [봉투에 '입학원서 제출' 기재 要]

- 다양한 장학 혜택
 - 입학 및 재학 시 성적에 따라 수업료 100~25% 면제
 - 학사조교 근무자 수업료 전액 면제 가능
 - 가계 곤란자 대상 수업료 일부 지원
 - 기숙사 입사자 전원에게 기숙사비 50% 지원
 - 교내 연구프로젝트 참여 시 수당 지급

- 문의
 - Tel : 031-201-2146~9 • E-mail : gsp@khu.ac.kr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